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사봉 경쟁 3파전

통합 이창선·박기영, 민주 이종운 물망 오희숙·이재룡 거취에 따라 쟁점 복잡



이창선 박기영 이종운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사봉을 누가 잡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물망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 일정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6일 이후 확정될 예정으로, 차기 후반기 의장을 이달 29일 내지는 내달 초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선인 이창선 부의장(미래통합당)과 박기영 의원(미래통합당), 2선인 이종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물망에 올라 3파전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 연임을 목표로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됐던 4선인 최다선의 박병수 의장은 불출마 의사를 밝혀 경쟁 구도가 정리되는 모양새다.

다만 현재 의석 분포를 들여다보면 민주당 6명, 통합당 5명, 무소속 1명인 상황에서 통합당 후보인 이창선 부의장과 박기영 의원이 경쟁할 경우 민주당의 이종운 의원에게 필패

다는 점에서 양당이 내부결속을 다지면서도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재룡 의원을 향한 삼고초려(三顧草廬) 후문이 나올 정도로 공을 들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의장 선출은 황제 투표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모두 12표 중 7표를 얻으면 의장으로 선출된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물망에 오른 세 후보 중 1957년 6월생인 박기영 의원이 가장 연장자다. 이어 1959년 3월생인 이종운 의원, 1959년 11월생인 이창선 부의장 순이다. 차지단체장급 예우에 연간 30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와 전용차에 비서까지 뿌리치기 힘든 달콤한 특전을 누가 누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인 정중순 의원의 거취 문제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사다. 2년 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후순위 후보자인 박 모씨에게 바통을 물려주기로 한 시점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정 의원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 동료의

원들까지 업지를 지켜줄 정도로 만점 활약을 선보이며 “군계일학이다”, “선출직보다 낫다”는 등의 신임을 얻고 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면서 직능 대표인 전문가를 뽑는다는 비례대표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비례대표 ‘입기 쪼개기’ 또는 ‘입기 나눠먹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약속은 약속이어서 지키지 않으면 신의 없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여서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 제7대 의회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박 모 의원이 후순위 후보에게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아 일부 당원들로부터 내내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신의를 따르자니 대세가 울고, 대세를 따르자니 신의가 우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사퇴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정중순 의원에게 지금 당장의 이해득실에 연연하기보다 멀리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 동 정



의정협의회 참석

▲노박래 서천군수는 5일 오전 11시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정협의회에 참석한다.

로컬 브리핑

부여소방서 유튜브 채널 개설

부여소방서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발맞춰 부여소방서 유튜브 계정 ‘채널 부소산(부여 소방서에 산다)’을 개설해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활용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전 세계 네티즌들이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하고 많은 계층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적용해 대중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채널을 개설했다. 소방서는 유튜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소방정책, 소방안전상식, 소방행사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여소방서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시청은 유튜브에서 ‘채널 부소산’ 또는 ‘부여소방서’ 검색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김장석 부여소방서장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효과가 높고 특색있는 소방홍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여=한남수 기자 han6112@ggilbo.com

소방서는 유튜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소방정책, 소방안전상식, 소방행사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여소방서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시청은 유튜브에서 ‘채널 부소산’ 또는 ‘부여소방서’ 검색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김장석 부여소방서장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효과가 높고 특색있는 소방홍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여=한남수 기자 han6112@ggilbo.com

식품마이스터고 장학금 수여

한국식품마이스터고(교장 이병대)는 지난 3일 입학식을 갖고 서해영 등 7명의 학생들에게 홍산장학회의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홍산장학회는 이인규 동문(키프로토 ㈜경영인)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해마다 기탁하는 기금으로 운영되는데 매년 전국에서 식품 산업 분야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고자 진학하는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올해도 1학년 입학성적 우수 학생 7명에게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씩 각각 지급했다. 장학금을 받은 이다영은 “아빠께 드린내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실 거”라면서 “장학금을 주시니 뭔가 더욱 희망을 갖게 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병대 교장은 “매년 모교 발전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시는 선배의 뜻을 후배들이 잘 생각하고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 좋은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부여=한남수 기자

부여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물꼬

농축산부 공모 대상지 선정

부여군이 미래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선 7기 들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에 드디어 물꼬가 열렸다. 3일 부여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사업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부여군이 기본조사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자구책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지하수 관정 개발을 통해 해결해 왔으나, 최근에는 지하수마저 고갈되어 반산지구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박정현 군수는 지난해 4월부터 중앙부처,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등을 수차례 방문, 해당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소위를 방문하여 강훈식 의원(아산시 을)에게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추진의 당위성을 피력하여 신규예산(입명 쪽지예산)으로 올해 정부 본예산에 기본조사 용역비 3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특히 박 군수는 지난 5월 6일 총리 공관을 방문하여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반산지구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5월 12일 공익직불제 접수현장 집결 차 부여를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반산지구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박정현 군수가 지난달 1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만나 사업을 건의하는 장면.

여 부여 반산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 411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양수장 5개소, 운수로 24km, 송수로 8.4km를 신설 보강하여 규암, 온산면 일대 원예특작 농가들에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로 생산·재배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건천화가 진행된 온산면 일대에 유지용수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 군수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부여군의 수박, 딸기, 멜론 등 원예특작 작물 생산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 밝히며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농업 인프라 구축의 몸집을 불려나가기 위한 원예특작 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과 침수피해 항구대책 마련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지난해 유치한 충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농어민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충청권 최초 농민수당 지원의 성과를 충남 농어민 수당 지급으로 확대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온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 총선 때 부여군민들에 약속했던 ‘반산지구 농촌용수 안정적 공급’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라며 “부여지역 농업인들이 더 이상 물 걱정 하시는 일이 없도록 신규착수 지구선정, 공사 착공과 준공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부여=한남수 기자 han6112@ggilbo.com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 캐릭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우리 동네 캐릭터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대한민국 지역·공공캐릭터 대상(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역대 수상작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사업에서 공주시는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가 최종 선정돼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역대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수상한 캐릭터(기관)는 모두 21개로, 공주시 고마곰과 공주는 고양시청 마스코트 고양고양이와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마곰과 공주는 지역철인 고마곰 철화과 무명왕의 유물, 공산성 등 지역문화유산을 재해석해 지난 2015년 탄생했으며, 공주시의 주요 축제와 행사, SNS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마스코트를 활용한 웹툰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이석우 시민소통담당관은 “역대 수상작 내에서도 우리시 마스코트가 두각을 드러내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마곰과 공주를 통해 공주시의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청양 사회적 경제 이끌 차세대 리더는?

충남도립대 창업아이템 대회 개최

청양군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들이 각자의 창업아이템을 놓고 승부를 겨뤘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는 4일 청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양군 사회적경제 리더양성과정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지난해 청양군 사회적경제 리더양성과정을 이수한 6개 팀이 참여했으며,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아이템으로는 ▲인생역점 팀의 ‘수산물 가공식품소매업’ ▲소나무 팀의 ‘친환경생태축산물’ ▲스윗네 팀의 ‘청양의 청(시립)’ ▲청양철갑 팀의 ‘구기차 생산 및 가공 판매’ 등이 제시됐다.

또, 드림플라워 팀의 ‘베어베터 발달장애인의 꽃배달, 꽃 상품화’와 통일밥상 팀의 ‘북한음식 문화를 보급하고 판매하는 통일 사업’이 창업아이템으로 참여하며 눈길을 끌었다.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허재영 총장은 “최근 코로나로 글로벌 경제가 후퇴되고 지역 경제가 부상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는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해 졌다”며 “이번 대회가 사회적경제 리더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립대학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2019 청양군 사회적경제 리더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오는 10일 수료식을 개최한다. 청양=김종성 기자

청양군 공무원 반부패교육 실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반부패·청렴 교육과 청렴지킴이단 결의대회를 가졌다. 강은미 한국인재경영교육

원 대표를 초청, ‘행복한 청렴 성장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은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실천전략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청렴지킴이단’ 결의대회를 가졌다. 청양=김종성 기자



옛 청양공공도서관이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서천’으로 재탄생, 지난 3일 개관식을 열었다.

서천군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서천’ 개관

서천군은 옛 청양공공도서관을 지역 공연 예술인과 단체의 연습 공간인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서천’으로 재탄생시키고 지난 3일 개관식을 열었다.

이번 조성 사업은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에 선정돼 약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연습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총 1084㎡ 규모로 중·소연습실, 리딩룸, 세미나실 등의 시설과 방송실, 음향·조명 시스템을 고루 갖춰 서천 유일의 전문 공연 예술 연습 공간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연습 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연습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습센터는 충남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맡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대관료는 중연습실 1~2만 원, 소연습실 5천 원~1만 원이며 세미나실과 동아리실, 리딩룸 등 그 밖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천=황인경 기자

청양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양성

(사)청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기섭)가 정리·수납, 실버건강체조건강지도사 교육을 시작으로 전문봉사자 양성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2일과 3일 이틀 동안 수강생 40여 명이 함께 한 첫 번째 교육은 연미옥 한국수납관리전문가협회 대표, 장일상 한국힐링경영연구원 충북지부장의 강의로 정산행정복지센터 회의실과 청양군여성회관에서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 수납전문가 2급과 실버건강체조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특히 수료 후 전문봉사단을 구성해 어려운 가정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리·수납반 수강생(정산면) 씨는 “평소 살림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끝날 때까지 잘 배워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기섭 센터장은 “전문봉사자 양성과정을 통해 군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의 발판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청양=김종성 기자 kjs3605@ggilbo.com